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7호 [주제 제2566호] 주제 106 (2017)년 6월 6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태양조선의 영원한 사회주의국가인 《세계에 부림없이》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서 고요한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된다.

우리의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의 명철인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을 맞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대회의 의의는 더욱 부강되고있다.

대회의 의의는 더욱 부강되고있다. 열렬히 축하한다. 열렬히 축하한다.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새롭고 훌륭하고 대담한 가는 당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을 고취한 결성제이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이 자라나고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보상을 담담히 보여주는 의의있는 정치축전이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으며 태양의 따사로움과 빛깔이 활짝 꽃피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밝은 모습에서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처럼 훌륭한 조선소년단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백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기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조선소년단은 억만간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존엄하고 강대한 핵무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소년단원들이 건전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혁명의 피조기가 꽃피고 이어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조선소년단이 접은 자랑찬 행로에는 주체적소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욕의 로고를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명도의 자욱이 력력의 새겨져있다.

일제강점기의 불길속에서 조선소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상에 처음으로 가장 인민적인 진압적투로교도 제도물 세워주시고 철마와 학생들에게 세 교복을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학생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같이 주체적의 진전이 업적을 떠치며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언제나 학생소년들의 친근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시어 비바람, 불구름도 다 막아주시기 위한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움과 애정이 있었기에 그처럼 어렵고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도 이 땅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방방히 울려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역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소년단 창립 100년은 주체적소년운동에 특기할 년대라고 믿을 수 있고있다. 전민적 12년제의 무교육의 꽃대문을 열어주시어 우리 학생소년들이 배움의 나라를 활짝 꽃피고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 주실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조선소년단은 억만간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존엄하고 강대한 핵무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소년단원들이 건전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혁명의 피조기가 꽃피고 이어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후대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다. 세상은 우리 소년단원들처럼 당과 국가의 크나큰 은정에 나라의 역군으로, 기동감들로 역세게 준비해나가는 학생소년들은 없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학생소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꽃피우어 이어 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는새로 새로운 전환적기기로 된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은 조선소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명부를 독수리처럼 사수한 항일아동단의 김기승,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치산들의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은 조국청사에 빛나게 새겨져있다. 뜻밖의 정황속에서 핵무산대위원들의 초상화를 환복습하며 보위한 학생소년들의 영웅적 소행은 항일아동단의 수령 영웅전열을 이어받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가슴에 날리는 붉은색리본은 우리 당기발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 주체적소년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해온것이 자랑으로 조선소년단의 자랑이고 긍지이다.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명맥이며 소년단원들이 영원히 이어나가야 할 피조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쫓기 위해 갈라져나가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혁명전진적, 혁명사적지대사행군길을 걸으며 이어가는 혁명의 계승자들도 우리 소년단원들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핵무산대위원들의 풍상과 금순영웅전열을 최상의 수준에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를 바쳐가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체현자들도 주체조선의 소년단원들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수령의 소년조직으로의 조선소년단의 혁명적정신을 더욱 굳건히 고수되고 태양을 따르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오늘도 매일 더 영원히 불멸의 강국으로 존엄을 떨칠것이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학생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우는데 중요한 계기로 된다. 주체적소년운동은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뚜렷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긍지높은 로장으로 빛나고있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명부를 독수리처럼 사수한 항일아동단의 김기승,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치산들의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은 조국청사에 빛나게 새겨져있다. 뜻밖의 정황속에서 핵무산대위원들의 초상화를 환복습하며 보위한 학생소년들의 영웅적 소행은 항일아동단의 수령 영웅전열을 이어받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가슴에 날리는 붉은색리본은 우리 당기발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 주체적소년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해온것이 자랑으로 조선소년단의 자랑이고 긍지이다.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명맥이며 소년단원들이 영원히 이어나가야 할 피조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쫓기 위해 갈라져나가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혁명전진적, 혁명사적지대사행군길을 걸으며 이어가는 혁명의 계승자들도 우리 소년단원들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핵무산대위원들의 풍상과 금순영웅전열을 최상의 수준에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를 바쳐가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체현자들도 주체조선의 소년단원들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수령의 소년조직으로의 조선소년단의 혁명적정신을 더욱 굳건히 고수되고 태양을 따르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오늘도 매일 더 영원히 불멸의 강국으로 존엄을 떨칠것이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학생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우는데 중요한 계기로 된다. 주체적소년운동은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뚜렷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긍지높은 로장으로 빛나고있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명부를 독수리처럼 사수한 항일아동단의 김기승,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치산들의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은 조국청사에 빛나게 새겨져있다. 뜻밖의 정황속에서 핵무산대위원들의 초상화를 환복습하며 보위한 학생소년들의 영웅적 소행은 항일아동단의 수령 영웅전열을 이어받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가슴에 날리는 붉은색리본은 우리 당기발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 주체적소년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해온것이 자랑으로 조선소년단의 자랑이고 긍지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오늘도 매일 더 영원히 불멸의 강국으로 존엄을 떨칠것이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학생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우는데 중요한 계기로 된다. 주체적소년운동은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뚜렷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긍지높은 로장으로 빛나고있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명부를 독수리처럼 사수한 항일아동단의 김기승,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치산들의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은 조국청사에 빛나게 새겨져있다. 뜻밖의 정황속에서 핵무산대위원들의 초상화를 환복습하며 보위한 학생소년들의 영웅적 소행은 항일아동단의 수령 영웅전열을 이어받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가슴에 날리는 붉은색리본은 우리 당기발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 주체적소년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해온것이 자랑으로 조선소년단의 자랑이고 긍지이다.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명맥이며 소년단원들이 영원히 이어나가야 할 피조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쫓기 위해 갈라져나가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혁명전진적, 혁명사적지대사행군길을 걸으며 이어가는 혁명의 계승자들도 우리 소년단원들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핵무산대위원들의 풍상과 금순영웅전열을 최상의 수준에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를 바쳐가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체현자들도 주체조선의 소년단원들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수령의 소년조직으로의 조선소년단의 혁명적정신을 더욱 굳건히 고수되고 태양을 따르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오늘도 매일 더 영원히 불멸의 강국으로 존엄을 떨칠것이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학생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우는데 중요한 계기로 된다. 주체적소년운동은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뚜렷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긍지높은 로장으로 빛나고있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명부를 독수리처럼 사수한 항일아동단의 김기승,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치산들의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은 조국청사에 빛나게 새겨져있다. 뜻밖의 정황속에서 핵무산대위원들의 초상화를 환복습하며 보위한 학생소년들의 영웅적 소행은 항일아동단의 수령 영웅전열을 이어받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가슴에 날리는 붉은색리본은 우리 당기발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 주체적소년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해온것이 자랑으로 조선소년단의 자랑이고 긍지이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선군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소년단원들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다. 전체 소년단원들은 당과 조국,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의 피조기를 꽃피우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강성조선의 주인공으로 역세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참된 소년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품성은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의가 맑고 깨끗한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은 후대사상, 미래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친근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앞날은 밝아있고 창창하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열렬충성들로 혼돈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항일아동단원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소년빨치산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걸사공으로 하는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신경을 생각하고 원수님께 기쁨드린 한마음으로 심장을 뛰고있으며 참다운 혁명적분노를 합쳐서 피사하여야 한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조선에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수령에 바친것이 참가하고 책 읽기를 비롯한 피조기들을 강화하여 다방면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소년단원들에게 세계를 믿고 울려서겠다는 꿈을 키워주고 산지식을 배워주어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에 그들의 성장에 비기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당의 영예와 영웅의 금빛메달도 붉은색리본의 소년단원들에서부터 시작된다것을 명심하고 소년단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의 참가하며 조직의 불공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질서와 공동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일상적으로 몸을 혼돈이 면하여 정신육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좋은 열렬충성소년단원을 믿고 따르는 의의가 맑고 깨끗한 충실성이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조선에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수령에 바친것이 참가하고 책 읽기를 비롯한 피조기들을 강화하여 다방면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소년단원들에게 세계를 믿고 울려서겠다는 꿈을 키워주고 산지식을 배워주어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에 그들의 성장에 비기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당의 영예와 영웅의 금빛메달도 붉은색리본의 소년단원들에서부터 시작된다것을 명심하고 소년단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의 참가하며 조직의 불공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질서와 공동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일상적으로 몸을 혼돈이 면하여 정신육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좋은 열렬충성소년단원을 믿고 따르는 의의가 맑고 깨끗한 충실성이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조선에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수령에 바친것이 참가하고 책 읽기를 비롯한 피조기들을 강화하여 다방면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소년단원들에게 세계를 믿고 울려서겠다는 꿈을 키워주고 산지식을 배워주어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에 그들의 성장에 비기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당의 영예와 영웅의 금빛메달도 붉은색리본의 소년단원들에서부터 시작된다것을 명심하고 소년단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의 참가하며 조직의 불공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질서와 공동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일상적으로 몸을 혼돈이 면하여 정신육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좋은 열렬충성소년단원을 믿고 따르는 의의가 맑고 깨끗한 충실성이다.

## 경애하는 김정일선군께서

###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전달과 대표증 수여모임 진행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이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맞이하였다.

따사로움 태양의 빛깔로 사회주의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외참가자들에게 사탕의 선물을 보내주시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보신 대표증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선군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며 대표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전총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대회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최룡해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국민이 미제와 각종 적대세력들의 합작적전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을 전달하고 대표증을 수여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하늘 같은 사랑과 온정속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만들어주시고 주체혁명의 바통을 꽃피우어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는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움 품속에서 붉은색리본을 매고 하나의 조직에 굳게 뭉쳐 미래의 주인공들로 믿을 필하게 자라나고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힘있게 키우도록 행복을 세대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대회참가들과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열렬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선군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당의 크나큰 온정속에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자라나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씩씩하고 강한 모습을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런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소년단사업의 전진기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가는 앞날의 주인공으로 역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며 다짐있는 축원의 인사로 드리는 모습은 적지 않게 보아 왔지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울리는 풍경은 실로 충격적이다. 아이들의 명철을 생각해 경악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조선밖에 없을것이라고 견

동골대원도 협회 미그스 에르조리구구막부 책임자는 김정일대원수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를 일일이 지도해주시고 소년단대표들이 참석하여 축하연설까지 하신 사실은 실로 감동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머나먼 지방의 이름없는 산골과 어촌의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이처럼 큰 행사에 대가로 참가한것만 보아도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하여 감 할수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모의 직위나 돈에 의해 아이들의 품격이 좌우되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토로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우리와 가르》는 다음과 같이 시술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열렬한 환호를 받고있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나라는 조선의 김정일대원수께서 자라나고있으며 정 말 놀랐기만 하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조선의 행복동이들

### 국제사회계가 찬양

이런이들을 억만간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서 여기며 세상만물을 다 안겨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상, 미래사상은 국제사회의 찬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해 로피아 로스토프 집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인 미네트롬페지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행사에 대해 이렇게 썼다. 김정일대원수께서는 아이들을 꽃피우어 사당하셨다.

그이께서는 2012년 6월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행사장은 우형철 박수와 《산세!》의 환호성, 기쁨으로 설레었다.

붉은색리본을 매신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의 교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는 격정으로 광풍을 휘둘렀다.

조선에서 평등하고 아이들사이의 혈연적유대를 보여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크나큰 온정속에 주었으며 전세계를 위문하였다.

로피아의 인터넷포털이나라각국의 언론들도 조선인민이 드리는 환호를 울리며 평등도

우리며 다짐있는 축원의 인사로 드리는 모습은 적지 않게 보아 왔지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울리는 풍경은 실로 충격적이다. 아이들의 명철을 생각해 경악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조선밖에 없을것이라고 견

동골대원도 협회 미그스 에르조리구구막부 책임자는 김정일대원수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를 일일이 지도해주시고 소년단대표들이 참석하여 축하연설까지 하신 사실은 실로 감동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머나먼 지방의 이름없는 산골과 어촌의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이처럼 큰 행사에 대가로 참가한것만 보아도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하여 감 할수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모의 직위나 돈에 의해 아이들의 품격이 좌우되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토로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우리와 가르》는 다음과 같이 시술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열렬한 환호를 받고있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나라는 조선의 김정일대원수께서 자라나고있으며 정 말 놀랐기만 하다.

【조선중앙통신】

것은 후대들에게 베푸는 그의 작별한 사랑이다. 세계는 새 세대들을 준비한 사랑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에서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보았다.

에리오피아 아디스 아바바평년회의 부위원장인 김정일대원수님의 명도따라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료 여기고 영 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의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감으로 된다.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조선의 어린이들은 행복동이들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 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를 리사장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세계일류급의 교육자됨됨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는 조선학생소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 하였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신동들이다. 가정에서 혁명의 아이를 키우 지고 해도 술잔이 든데는 나라에 많은 애국자들이 나라의 해방에서 자라나고있으며 정 말 놀랐기만 하다.

【조선중앙통신】

들의 아름다움과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선군사각자의 미래사상이 안아온 귀중한 진실이다.

로피아신문《하바루스크 역스쁘레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어린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미래이다.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후대사상은 온 겨레와 함께 앞날을 확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앞날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이들에게 대한 사랑할 수 없으며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나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후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일대원수님의 후대관, 지배관이다.

이 나라의 하바루스크변경정부 교육과학성은 새 세대의 행복찬 모습은 곧 해당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공자이며 번영의 기초이다. 존경하는 김정일선군의 크나큰 보살핌속에서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지 않다는 조선어린이들은 반드시 앞날의 애국자들로 성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개건된 연풍호소년단야영소 준공

우리 당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숭고한 화폭이 꽃피어 펼쳐지는 후에 연풍호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되었다.

풍치아름다운 연풍호의 자연 경치에 어울리게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개건된 야영소에는 김정일대원수의 교양실과 20여개의 침상, 전자오락실 등이 있는 야영장, 화장, 운동장을 비롯한 야영시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있다.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되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의 위원장 박태성동지와 강령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돌격대원들, 야영소준공일꾼들, 야영소들, 개건시단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태성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선군조선의 희망찬 미래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는 이번 나라의 뜨거운 온정속에 개건된 연풍호소년단야영소가 뜻있는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을 맞으며 준공하게 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풍호를 좋아하시면서 명당지마에 소년단야영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본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신데 대하여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께서 야영소에 많은 융합선비와 침구류, 악기, 유행선 등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대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시고 학생소년들에게 주시신 것은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불려주셨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대원수께서 연풍호소년단야영소 준공의 수순에서 우리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활짝 밝혀주시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학생소년들에게 자립성

과 귀품성, 집단주의정신을 심어주어 그들의 의공과 불려대원들이 자강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파란만장된 길에서 승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공을 앞당기는게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야영소준공일꾼들이 질서정연한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었으며 당의 온정속에 더욱 훌륭히 꾸러진 영광의 일대에서 후대들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맡겨진 본분을 다해나간다고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가방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평양가랑광장에서- 본사기자 신흥희 찍음





# 강성조선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간다

## 역세계 자라나는 선군시대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

조국땅위에 밝아온 6.6절의 이 아침을 누구나 기다렸다.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인민의 소중한 명절인 이날과 더불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조선소년단체 8차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으로 가정과 일터가 또다시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품어주는 고마운 당과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며 뛰어난 재능으로 나라의 영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6.6절의 이 아침 금메달 소년단아영소들에 차넘치는 사랑의 해빛

뜻깊은 6.6절을 맞이하고 보니 소년단아영소들에 차넘치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을 번개하는 영웅들도, 로력혁신자들도, 입군들도 항일아동단원들처럼 살리라는 맹세를 안고 맞고본 소년단원들을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붉은색리본을 날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드리는 학생소년들,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헌성원이 된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선군시대의 소년혁명가,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역세게 자라날 300만 소년단원들의 불타는 맹세로 6월의 이 땅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웃 아영소에 푸르 수심차에 걸쳐 3 700여명에 달하는 귀중한 선비와 기재들을 선출해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어머)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즐거운 아영생활을 하는 학생소년들의 밝은 모습이 아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안아주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생동한 화폭이기에때이러.

얼마전 창립 60돐을 맞는 만경대소년단아영소를 찾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투쟁의 지평이 다시금 눈앞에 어려웠다.

경지도 좋고 풍기도 맑은 풍악산기슭에 현대적인 아영소를 일떠세워주시려고 수수한 나무지팡이를 짚으시며 험한 길을 걸고걸으신 우리 수령님,

이웃 아영소에 푸르 수심차에 걸쳐 3 700여명에 달하는 귀중한 선비와 기재들을 선출해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불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만경대소년단아영소를 세 세계의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도록 해주신데 이어 지난해 6월 이곳을 찾으신어시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아이들의 멧생이공전이 또 하나 보란듯이 솟아올랐다고 그러도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 하나의 아영소에 짓는 철세위인들의 전성같은 후대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내 조국의 미래가 어이하여 그렇듯 하시며 장군님을 소리로써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가시는

이웃 아영소에 푸르 수심차에 걸쳐 3 700여명에 달하는 귀중한 선비와 기재들을 선출해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총에 나라의 뜻에 훌륭하게 개진된 소년단아영소들에 짓는 사랑의 이야기들은 또 그 얼마나 많고많은가. 충도원주제소년단아영소에 가보면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러진 아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교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 이런 멧에 아이들의 멧생이공전이 또 하나 보란듯이 솟아올랐다고 그러도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 하나의 아영소에 짓는 철세위인들의 전성같은 후대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내 조국의 미래가 어이하여 그렇듯 하시며 장군님을 소리로써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가시는

이웃 아영소에 푸르 수심차에 걸쳐 3 700여명에 달하는 귀중한 선비와 기재들을 선출해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그처럼 어려운 나라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짙세라 마음쓰신 장군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켜주고 하시던 위대한 어머니의 정의 세계에 눈금이 젖어온다.

장님 후대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떠안아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그 품에 안겨있기에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으로 강진을 울리고 그로 하여 내 나라가 더욱더 밝아지고있다.

당과 따뜻한 사랑속에서 우리 소년단원들은 얼마나 풍요롭게 성장하고있는가.

몇년전 평양시도합산동산 소년단아영소에서 품안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이웃 아영소에 푸르 수심차에 걸쳐 3 700여명에 달하는 귀중한 선비와 기재들을 선출해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기념사진을 찍었던 많은 학생들이 졸업후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용무에 걸 맹세를 안고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고 하던 서성구역 상신초등학교 교원의 말이 떠오른다. 이것이 항일아동단의 김기중, 김금순영웅처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맹비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려는 조선 소년단원들의 하나같은 모습이 고 열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노래하며 펼쳐 휘날리며 아영기를 한층토록 가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해 몸과 맘 다 바쳐갈것이다.

이웃 아영소에 푸르 수심차에 걸쳐 3 700여명에 달하는 귀중한 선비와 기재들을 선출해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를 보위하고 애인 생활을 바쳤다. 불속에 뛰어들어 조국의 후를 숲을 구원하고 꽃다운 생음 마친 리창도학생의 뒤를 이어 투쟁선 3월에는 고향방의 귀중한 선임을 구원하는 길에 한복숨마친 정경군의 리금성학생이 세세대 소년단원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넘겼음이 보여주었다.

과연 누가 이들을 애국정열의 한길로 이끌었는가. 항일아동단의 소년영웅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도 시슴없이 바친 항일아동단원들이 고귀한 혁명정신을 조선소년단원들에게 혁명의 피술기로 물려주었다.

《열세놈들을 라도하라!》,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정열한 최후를 마친 김금순, 사형장에 끌려나간 최후의 순간 《나를 용서로 쓰지 말고 낄살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용달은 유격대에 보내달라.》라고 외치며 투쟁을 끝낼 한 전진기, 불타는 아궁에 봉신폭탄을 숨겨진 심신을 심은채로 밭을 돌이키고 조국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바친 목숨이...

항일아동단원들의 이런 고귀한 정신을 오늘날의 청년들이 이어받고 그의 깨끗한 정신이 남이 아니라 나라의 수많은 선군시대 소년영웅들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숭고한 정신세계를 짓는 세세대들이 자라나고있는것이아말로 우리 조국의 또 하나의 긍지가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는 이들의 모범이 배두의 넉과 신념을 지닌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열을 본다. 혁명적이고 용감한 혁명의 후배대인 소년단원들의 모습에서 더욱 찬양할내 조국의 패일을 그려본다.

당원의 영예와 영웅의 금메달도 붉은색리본과 소년단원에게서부터 시작된다것을 깊이 새기고 소년단원들이 다진 맹세를 지켜 소년단원들을 값있게 빛내어가고있는 우리의 수백만 소년단원들은 불멸의 대양기를 소년단원기일에 휘날리며 혁명의 피술기를 뜻뜻이 이어갈것이다.

글 쓴사기자 김 명 훈  
사진사기자 리 명 규

이웃 아영소에 푸르 수심차에 걸쳐 3 700여명에 달하는 귀중한 선비와 기재들을 선출해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 백두의 빛을 안고 살도록

신의주시 김금순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소년단원들은 항일아동단의 김기중,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맹비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어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항일아동단원들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신의주시 김금순고급중학교에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해마다 백두산 밀영교향집을 찾아가는 사업용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을 선군시대의 소년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다.

올해에도 평명성립을 앞두고 이 학교에서는 수심적인 모범적인 초급소년단원들이 백두산 밀영교향집으로 향하였다. 청년동맹, 소년단원지도원 미해봉부와 교원 리성철동무가 인솔하는 대열을 학교의 모든 교원, 학생들, 학부형들이 뜨겁게 배려

위주였다.

세대는 바뀌어도 지난 25년동안 변함없이 이어가는 길이었다. 혁명의 불은기와 함께 항일아동단원들의 붉은색리본 펼쳐 휘날리던 백두의 밀림을 따라 오 눈은 이 땅의 새 세대들이 끊임없이 행군해가고있다.

이 길에서 얼마나 많은 소년단원들이 몸과 마음을 역세게 새겨두었는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짊어지던이 아니라 원고의 밀림속에서 눈물로 제철해가는 과정에 소년단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물리라고 말해지고있는 사실은 이 학교 교육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곤 하였다.

실지 혁명의 성지, 혁명전통 교양기점을 통한 교육교양의 강화되는 때우었다.

그러하여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글씨를 배우고 백두의 눈노리맛을 아는 혁명의 후배대, 앞날의 기동장으로 키우기 위해 늘 애썼다.

올해에도 학교적인 관심속에 백두산밀영교향집을 찾이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원,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리없이 맑고 깨끗한 총정의 마음에 의해 마련된 많은 지원물자들이 백두산밀영혁명전진지관리소에 가량게 되었다.

《김금순영웅과 나서는 제목으로 일기를 쓰는것을 생활화하며 언제나 항일아동단의 고귀한 빛으로 심장을 불태워가는 이 학교 학생들의 마음은 봉남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백두산으로 달리고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학과학습은 물론 조직생활과 도덕기풍, 좋은일하기에서도 언제나 모범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학생들을 태양만을 따르는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해 믿기붙이 되어온 교장 문성실동무부 비롯한 이 학교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처럼 이 학교 교육자들은 늘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굳건한 신념을 새겨주고있다.

언제나 백두의 빛을 안고 살라!

본사기자 공로 령

### 든든한 뿌리있어 늘어나는 5점꽃

평천구역 간성초급중학교에서

히 갖추어진 해빛밝은 교실마다에서 학습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앞에서는 더욱더 발돋움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을 정양제 1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상급학교들에 보내는 학교가 과연 나라는 생각이 깊어졌었다.

《우리 당은 선생님이 항일의 아동단지도원들처럼 원주인의 귀중한 소년단원들을 전부모인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 배구 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끈끈히 단련해가는 학생들과 다양한 경기에서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승리의 신념에 넘쳐 훈련에 열중하는 배전도소조원들, 학구조원들의 모습도 볼만 하였다.

그러나 세상을 놀래우는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가 될 줄은 꿈과 희망을 안고 현대적인 교육실비와 수련장이 충분

할것이다. 호기심이 넘달라 강한 시지컬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를 안겨주는데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교육자들이 천만 갈래로 가지쳐가는 학생들의 사고를 솔바도 이끌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교재에만 매달리는 순후는 방법을 배려한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두말할것없이 학생들의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사고능력을 높여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리학 등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원만히 소유해야 하며 또 모든것을 변칙없이 가르쳐줄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자연분과 교원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연구도론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교장은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교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이 시간을 잘 리용하면 교원들의 지적 활동사상에서 큰 전진점이 지적

할수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교원들중에서는 학생들이 사물현상을 파고들도록 어떻게 유도하며 또 제기될수 있는 각이한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주겠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토론들이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그들중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밤늦도록 토론하며 교재를 연구한 교원들도 있었고 수년세월 학생들의 영혼을 짚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어두며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교원들도 적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우리 소년단원들의 5점꽃이 바로 그런 불같은 열정적 헌신을 밀지않고 하여 날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은 마냥 달아올랐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희망과 미래의 전부를 내세워주시던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모범이다. 우리 당에서는 교육자들이 훌륭한 뿌리가 되고 세상 정한 스승이 되며 그들을 이상

을 놀래우는 앞날의 인재들로 키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바로 이것을 심장같이 쏘아막고 살며 투쟁하는 이곳 교육자들이기에 2호교사와 수명영의 타일불이기도 접이전투를 벌려 단원사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시대로 신내학구장에 참출된 학생들이 몸뚱이 있을수 있는 세만장도 꾸러놓고 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지적적특성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지리학습에도 맛있게 계 만들어놓을수 있었다.

물론 그 모든 성과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천만사리의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헤쳐야만 한다것은 의심의 확고한 판정이였고 의지였다.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풍만한 결실을 맺도록 해주는 뿌리와 같이 누가 보전할까. 잘 아추진할까 후대교육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이런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어 우리 소년단원들의 5점꽃 자랑은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함경 훈



- 평양 초등학교에서 -  
- 평양 중등학교에서 -  
- 충도원주제소년단아영소에서 -  
- 만경대 소년단아영소에서 -  
- 마시빙스키장에서 -  
- 평양 학생소년공전에서 -



#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얼마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 《정권》, 전정 《정권》을 다시금 연장하려고 발광하는 피피보수세력에게 대항하여 단결하여 자신들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뚜렷히 보여 주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 《정권》들의 극단적인 동족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북남관계의 과격 후퇴를 가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의 주된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남선언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통일대결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새 《정권》이 등장한다고 관망하여 이른 봄에 《정권》에 의해 차단되었던 북남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대항을 다시 실현하기 위한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대항을 제하는 것은 전면적 대항에 대한 한 북남관계를 의심하는 데 필요하지만, 하지만 피피보수세력이 단결되었던 일부 《인도적지선》이나 긴급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북남관계과국의 근원부대 해소해야 한다.

내외의 거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북남관계의 과격후퇴는 피피보수세력이 들고나온 온갖 반공화국대결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질 때에만 수습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거리는 북남선언들이 계속 줄기차게 이행되었다면 기쁘고 통

일의 길에서 눈부신 사변을 맞이했으리라 하는데 대해 믿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상태에 이른 지금의 북남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된 그 격동적인 나날들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현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위반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면 북남관계는 우여곡절과 파국을 겪게 되고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확고히 정립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확고히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북남관계가 왜 이 지경으로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 돌이켜보아야 하며 거기서 용감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피평약역도가 들고 나왔던 《비핵, 개방, 3000》은 외세와 아합하여 동북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완전히 배반되는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이다. 피평약역도가 그 무슨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면서 한창이던 북남선언들을 무효하고 6.15공동선언에 이복된 성과들을 모조리 파괴한 것은 내일 일이다는 것은 이미 6.15공동선언을 통해 현실로 화되었다. 우리 거리는 그 격동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길을 외세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엄숙히 새겨 넣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10.4선언이 재확인되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며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실천양도들을 뚜렷이 명시한 10.4선언은 오늘날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10년이라는 장선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거리는 북남선언들이 계속 줄기차게 이행되었다면 기쁘고 통

일의 길에서 눈부신 사변을 맞이했으리라 하는데 대해 믿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상태에 이른 지금의 북남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된 그 격동적인 나날들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현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위반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면 북남관계는 우여곡절과 파국을 겪게 되고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확고히 정립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확고히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북남관계가 왜 이 지경으로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 돌이켜보아야 하며 거기서 용감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피평약역도가 들고 나왔던 《비핵, 개방, 3000》은 외세와 아합하여 동북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완전히 배반되는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이다. 피평약역도가 그 무슨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면서 한창이던 북남선언들을 무효하고 6.15공동선언에 이복된 성과들을 모조리 파괴한 것은 내일 일이다는 것은 이미 6.15공동선언을 통해 현실로 화되었다. 우리 거리는 그 격동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길을 외세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엄숙히 새겨 넣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10.4선언이 재확인되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며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실천양도들을 뚜렷이 명시한 10.4선언은 오늘날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10년이라는 장선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거리는 북남선언들이 계속 줄기차게 이행되었다면 기쁘고 통

일의 길에서 눈부신 사변을 맞이했으리라 하는데 대해 믿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상태에 이른 지금의 북남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된 그 격동적인 나날들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현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위반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면 북남관계는 우여곡절과 파국을 겪게 되고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확고히 정립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확고히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북남관계가 왜 이 지경으로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 돌이켜보아야 하며 거기서 용감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피평약역도가 들고 나왔던 《비핵, 개방, 3000》은 외세와 아합하여 동북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완전히 배반되는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이다. 피평약역도가 그 무슨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면서 한창이던 북남선언들을 무효하고 6.15공동선언에 이복된 성과들을 모조리 파괴한 것은 내일 일이다는 것은 이미 6.15공동선언을 통해 현실로 화되었다. 우리 거리는 그 격동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길을 외세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엄숙히 새겨 넣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10.4선언이 재확인되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며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실천양도들을 뚜렷이 명시한 10.4선언은 오늘날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10년이라는 장선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거리는 북남선언들이 계속 줄기차게 이행되었다면 기쁘고 통

# 보수떨거지들의 필사적인 발버둥질

정의 절망과 현실을 외면하는 반역정부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 역사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박근혜역도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강행수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회》 출몰이 끝날까 봐 걱정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얼마전 피피보수세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발행체제를 《국정교과서》에서 본래의 《집중교과서》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박근혜역도가 저들의 반민족적인 침미, 친일의 역사와 《유신》 독재통치를 찬미하기 위해 들고나온 《국정역사교과서》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었다. 이것은 박근혜역도가 남조선민족적인 온갖 죄책을 감싸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출간 투쟁의 결과이다. 남조선에서 역사교과서발행체제가 다시 《집중교과서》로 전환되자 관련하여 민주개혁세력들은 물론 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보수정당의 단체들도 환영해 나섰고 있다.

같은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계파들이, 이자들은 지금 《역사》의 저자가 정치적편향에 따라 왔다갔다할 수 없다. 《역사》는 《정권》의 국정교과서만들기라느니 하고 범칙 고이대면서 《국정역사교과서》의 폐기를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한편 《보수의 귀환》이니, 《총재적귀환》이니 하고 아무렇게나 저러서 보수세력들을 끌어모아 남조선 각계의 적색배당수령을 지지시키려고 달려들었다. 그야말로 남조선의 초복민심에 대한 참증수 없는 우방이고 악랄한 도둑이 아닐 수 없다.

알려지지 않은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유신》 독재자가 1974년부터 학생들에게 《출발! 국가관》을 새겨주었다는 미명하에 강제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교육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구권을 불리시켰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2003년부터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들을 검열을 받아 사용하는 《집중교과서》가 시행되었다.

이것을 과소적인 《국정교과서》로 뒤집어 놓은 특혜방어 바로 박근혜역도이다. 《유신》 독재자인 아버지의 《정치적명예회복》을 추구하고 정치투쟁에 나선 친위세력은 《대통령》 방기

를 쓰자마자 그 무슨 《파면령》과 《정통성》에 대해 제재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회》가 산포된 후에 역사학자의 말을 쓴 몇몇 극우보수나부류들이 어부지경한 불쌍하게 들어박혀 박근혜역도가 제 예비계 정거박자는 《국정역사교과서》의 최후본을 꾸미었다. 박근혜역도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유신》 독재를 찬미하고 민족 《정권》들의 침미, 친일의 지옥스러운 범죄사를 정당화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자부심을 마비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질서만 문화, 보수화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계몽을 실현하려고 꾀하였던 것이다.

역사를 반쪽짜리 제외하여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 박근혜역도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 《역사교과서》도 한결같이 규탄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회》 반대투쟁에 적극 펼쳐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초복항쟁으로 집권후 온갖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가차없이 끌어내리고 온전한 정권을 가함으로써 피피보수세력의 사대의 호명을 역행하며 강압수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회》에도 수치스러운 종말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함께 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신세에 처한 피피보수당원들이 아직까지 기가 살아 억도적인 유골인 불공통같은 《국정역사교과서》를 부동계고 그의 폐기운동에 제동을 걸고보고자 발버둥질을 치는 것은 실로 가관이다.

피피보수세력이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에 한사코 반발해나선 것은 본질에 있어서 피미린 좌파 독재정부를 부활시키려는 또 하나의 계기투쟁으로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 각계의 지식을 분노를 자아내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악질피보수세력의 망동을 철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피피보수세력은 파멸의 나락에서 헤어나오려고 발광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소란히 썩어무너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 실 하**

를 쓰자마자 그 무슨 《파면령》과 《정통성》에 대해 제재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회》가 산포된 후에 역사학자의 말을 쓴 몇몇 극우보수나부류들이 어부지경한 불쌍하게 들어박혀 박근혜역도가 제 예비계 정거박자는 《국정역사교과서》의 최후본을 꾸미었다. 박근혜역도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유신》 독재를 찬미하고 민족 《정권》들의 침미, 친일의 지옥스러운 범죄사를 정당화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자부심을 마비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질서만 문화, 보수화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계몽을 실현하려고 꾀하였던 것이다.

역사를 반쪽짜리 제외하여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 박근혜역도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 《역사교과서》도 한결같이 규탄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회》 반대투쟁에 적극 펼쳐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초복항쟁으로 집권후 온갖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가차없이 끌어내리고 온전한 정권을 가함으로써 피피보수세력의 사대의 호명을 역행하며 강압수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회》에도 수치스러운 종말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함께 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신세에 처한 피피보수당원들이 아직까지 기가 살아 억도적인 유골인 불공통같은 《국정역사교과서》를 부동계고 그의 폐기운동에 제동을 걸고보고자 발버둥질을 치는 것은 실로 가관이다.

피피보수세력이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에 한사코 반발해나선 것은 본질에 있어서 피미린 좌파 독재정부를 부활시키려는 또 하나의 계기투쟁으로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 각계의 지식을 분노를 자아내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악질피보수세력의 망동을 철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피피보수세력은 파멸의 나락에서 헤어나오려고 발광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소란히 썩어무너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 실 하**

## 민주로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단죄

남조선의 광역연맹 5월 31일 민주로총 중앙집행부를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3명이 벌금형을 선고한 피피보수의 판결에 항의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와 민주로총의 4.24총파업투쟁을 비롯한 여러 집회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유죄의 근거로 지부연 사건은 박근혜의 특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주장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로총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저버렸다고 단죄하였다.

**폭행 등으로 생중첩을 당하는 남조선교리군**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북부에서 이러한 고소행위의 무리인 남조선피피보수에서 자살사건을 비롯한 미끼가 계속되고 있다. 5월 24일 피피보수본부의 한 여성장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생중첩을 당한 후 신체파괴를 하던 끝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광역연맹 5월 31일 민주로총 중앙집행부를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3명이 벌금형을 선고한 피피보수의 판결에 항의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와 민주로총의 4.24총파업투쟁을 비롯한 여러 집회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유죄의 근거로 지부연 사건은 박근혜의 특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주장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로총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저버렸다고 단죄하였다.

**폭행 등으로 생중첩을 당하는 남조선교리군**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북부에서 이러한 고소행위의 무리인 남조선피피보수에서 자살사건을 비롯한 미끼가 계속되고 있다. 5월 24일 피피보수본부의 한 여성장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생중첩을 당한 후 신체파괴를 하던 끝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광역연맹 5월 31일 민주로총 중앙집행부를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3명이 벌금형을 선고한 피피보수의 판결에 항의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와 민주로총의 4.24총파업투쟁을 비롯한 여러 집회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유죄의 근거로 지부연 사건은 박근혜의 특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주장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로총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저버렸다고 단죄하였다.

**폭행 등으로 생중첩을 당하는 남조선교리군**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북부에서 이러한 고소행위의 무리인 남조선피피보수에서 자살사건을 비롯한 미끼가 계속되고 있다. 5월 24일 피피보수본부의 한 여성장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생중첩을 당한 후 신체파괴를 하던 끝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광역연맹 5월 31일 민주로총 중앙집행부를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3명이 벌금형을 선고한 피피보수의 판결에 항의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와 민주로총의 4.24총파업투쟁을 비롯한 여러 집회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싸드》배치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남조선인민위원회 《인권위원회》가 1일 《싸드》배치 전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피피보수정부가 한민통이 《싸드》배치 4개월 후 추가 도입하고 고의적으로 온세시권에 대해 폭로하고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배하여 악재라고 규탄하였다.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처음에 미국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싸드》배치에 대하여 발표된 이래 배치를 그 어떤

## 관계 개선에 맹해무익한 《인권》모략기구

남조선의 현 당국이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싸드》배치 전과정에 대한 《인권위원회》를 내세워 이거 그와 관련된 실무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인권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남조선의 통합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실 남조선에서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지금껏 《인권의 심각한 인권문제들은 당면과제에 응대하고 쫓겨나기 《북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반공화국모략에 방방해했다. 남조선에서 《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에 생겨났다. 그 목적은 과거 독재 《정권》들의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인권위원회》는 독재혁명의 시나,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가 전락하였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리명박역도의 불리리, 피수아미기구로 전락한 피피보수정부는 통일청기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권력기관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있었다.

## 비정규직안전철폐를 위한 총파업 선포

남조선인민위원회 《인권의 소외》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총파업비정규직조합과 민주로총이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비정규직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 총파업 선포

남조선인민위원회 《인권의 소외》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총파업비정규직조합과 민주로총이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비정규직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수정부가 비정규직 안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불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저위직인 비정규직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걸맞은 미국과 피피보